

[TV]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KBC 생방송! 모닝와이드, and EBS 건강을 위한 10분.

이서진, 시청자의 '연인'으로 부상

SBS '연인' 시청률 15.2% 급상승...KBS '황진이' 독주 위험

SBS TV 20부작 드라마 '연인'(극본 김은숙, 연출 신우철)의 이서진(33)이 '시청자의 연인'이 됐다. 6일 9회가 방송되면서 중반으로 접어들어 '연인'은 이서진, 김정은, 김규리의 이슬이슬한 삼각관계가 점점으로 치달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삼각관계의 키를 쥐고 있는 이서진의 속내를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눈빛 연기가 인기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서진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한바탕' 표정, 목소리, 눈빛 연기, 절제된 표현, 모든 면에서 당신은 진정한 최고의 배우였어요.'(채은주), '이서진 씨의 흡입력 있는 연기 감탄!'(김영례) 등 온통 이서진에게 흠뻑 반했다는 내용들이었다.

극 초반만 해도 이서진은 '연인'의 원작인 영화 '악숙'의 남자 주인공 박신양에 비해 카리스마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우하게 자란 과묵하고 강단 있는 조폭폭력배 보스 강제 역에 이서진은 역부족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

은 듯도 했다. 그러나 화가 거듭되면서 이서진은 강제를 누구도 아닌 자신의 캐릭터로 만들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하염금 초반의 평가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김은숙 작가의 가슴을 파고드는 대사와 상대 역인 김정은의 안정적 연기가 뒷받침되면서 이서진의 강제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탄생했다.

'연인'에서의 이서진의 연기는 역시 인기를 끌었던 '불새'나 '다모'에서의 연기와는 또 다른 접점을 놓아 있다. 그럴 만한 위치가 있으면서도 어떤 야망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력을 휘두르려고도 하지 않는 강제의 모습은 조폭 보스이지만 오히려 더 살갑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기에 그가 미주(김정은)와 유진(김규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역시 다분히 인간적인 것. 6일 방송분 마지막 장면에서 강제가 결을 지나쳐가려는 미주의 팔을 잡고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유진이 보러 온 거 아닙니다"라고 쫓아내듯 내뱉는 대사의 울림이 클 수 있었던 것도 그때문이다.

시청률 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에 따라



만 이날 '연인'의 시청률은 전주 5회에 이어 15.2%를 기록했다. 반면 동반 20%대를 유지하던 경쟁작 KBS 2TV '황진이'는 19.9%를 기록하며 19%대로 하락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제 시대'를 펼쳐지며 '연인'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Living TV advertisement for '현장속격 생생가요제' (Live TV) featuring a performance by MCs and singers. Includes text about live broadcasts and audience participation.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 for a 25% discount on repairs and accessories.

케이블·위성TV 8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MBC, SBS, EBS1, and KBS Prime. Columns include channel, program name, and time slot.